

# 조도개선사업에 ESCO를 적극 활용합시다!

■ 이선호 기자 (w3master@energycenter.co.kr)



“ESCO 사업은 추진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는 등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 ESCO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에 근무하는 유효진 계장(54)은 지난 74년 교육공무원이 된 후 27년째 공직에 몸담아오고 있다. 97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에너지절약마트에서 ESCO사업을 접한 이후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 학교들에 대한 ESCO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유 계장 소속과에서 지난해 추진한 ESCO사업은 충남교육청사와 충남과학고 외 28개교, 모두 1,025교실의 조명개체사업에 3억9천5백여만원이 투자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72% 증가한 1,761교실에 8억6천여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난방분야 87교실, 1억여원이 추가돼 모두 10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실의 조도기준을 종전의 150Lux에서 300Lux로 상향 조정하 바 있다. 이를 위해 99년 5월부터 교실 조도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ESCO사업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

충남교육청 관할지역의 현재 조도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5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과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ESCO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직 지역교육청 등에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는 도분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올해에는 지역교육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는 조명 이외에 냉·난방분야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유 계장은 교육청에서 ESCO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다름아닌 ‘홍보 부족’ 이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올 2월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의 ESCO 활용 방안 연구’ 라는 책자를 발행,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또한 시설담당 교육공무원 연수시나 교육장회의 때마다 안내 책자를 돌려 ESCO 활용



● 충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의 ESCO사업 추진 주역들  
(왼쪽부터 박정배씨, 유효진 계장, 오성철씨).

74년 교육공무원이 된 유효진 계장은 '원칙'을 중시한다. ESCO사업도 원칙적으로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진행시키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SCO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은 있을 것 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 감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이점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개선과의 노력을 통해 충남교육청 산 하 조도개선사업 및 ESCO사업은 순항중이다.

### 각 교육청별 관내학교 대상 조명설비 개선 청사, 연수원, 수련원 등 ESCO사업 효과 높아

현재 98년부터 시작된 교육시설에 대한 ESCO사업은 지 난해에만 전국 167개 학교에 175억원이 투자된 상태. 에너 지관리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37억원의 에너지비용절 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 ESCO사업은 에너지비 용절감 이외에도 교실밝기가 50~100% 향상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시력보호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진행에 있어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다. 유 계장은 "진단비 지급에 관한 규정 미비, 타 공사와의 분리 또는 통합발주의 문제, 학교의 특성상 방학 등만을 이 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ESCO기업의 자질문 제 등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 다"고 지적하고 있 다. 그는 특 히

"ESCO의 핵심은 진단능력"이라며 "물론 기관의 준비부족 도 있겠지만 ESCO가 진단에서부터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 한다면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계장은 'ESCO사업의 효율성' 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ESCO사업의 시장이 넓어지고 규모 가 커지는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ESCO가 많이 등장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자 측면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고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크 게 기여할 것이다.

"전기분야의 침두부하 조절, 냉· 난방분야의 열교환기 설 치, 열원교체설비, 폐열회수설비, 건축분야에서의 리모델링 등 ESCO사업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에너지자 원 빈국인 나라에서 위치에 있는 실무자라면 ESCO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정책적 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고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잘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원칙'을 지키면 서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 한다는 유 계장 같은 사람 들이 있기에 ESCO의 앞 날이 더욱 밝은 것은 아 닌런지. ☞

